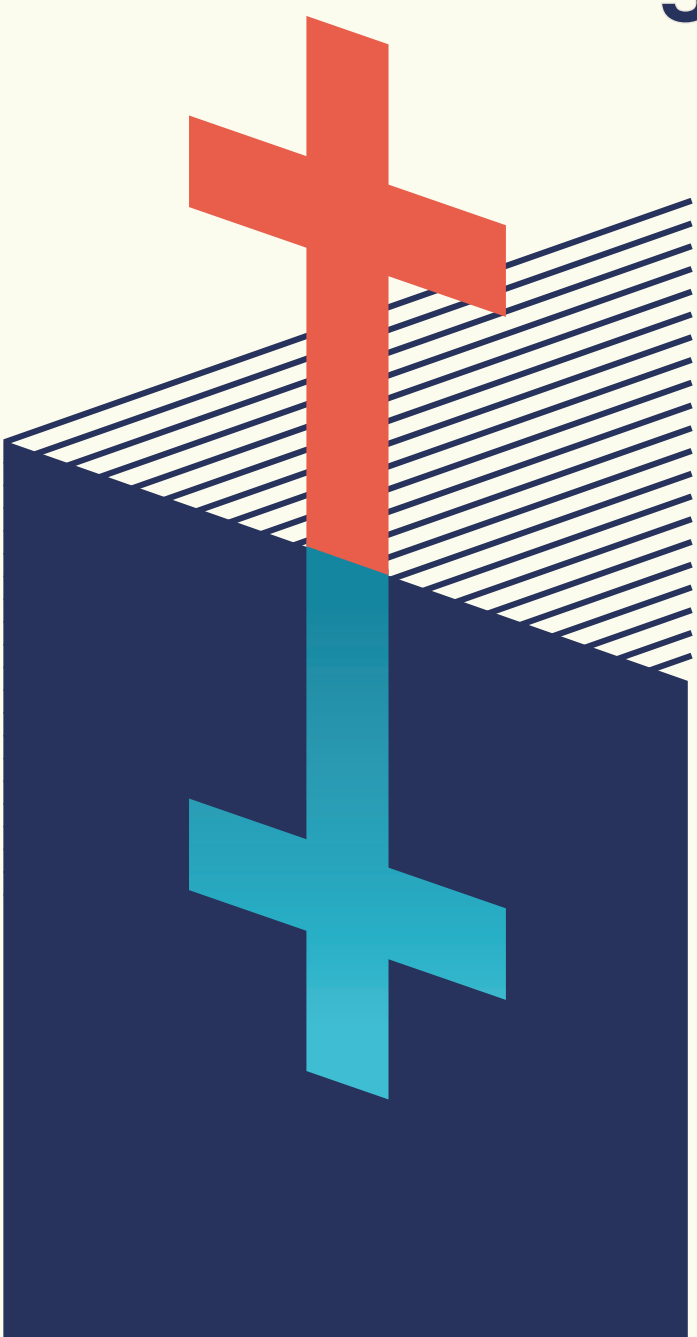
2024년

3월 10일

갈릴리 공과

로마서 강해



CHEONAN GALILEE METHODIST CHURCH
천안갈릴리교회

셀원들을 환영 - 얼음깨기(Ice-breaking)

1. 나와 가장 닮았다고 느껴지는 성경인물이 있다면?
2. 혼자 하는 일과 어울려 하는 일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나요?

| 찬양 - 만왕의 왕 내 주께서(151, 통138)

1.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2.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3.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후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 대표기도

내 마음 그치지 않는 고통 (롬 9:1-5)

지난 주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더 이상 무엇이 근심이 되고 또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9장으로 넘어오면서 8장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당혹스런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8장에서 사망 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망보다도 더 큰 근심거리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단장지애>라는 단어 아십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단장지애>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번영과 환락, 꿈과 돈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곳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단장지애> 심정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의인 50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의인 40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의인 30이 있다면! 의인 10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도성엔 의인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 받습니다.

바울에게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도 우주적이고 신적인 이 민족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1. 바울의 큰 근심

롬 9:1-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부정하고 핍박하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저주하던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매복 요원들이 40여명이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핍박,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 내 동족! 내 민족! 살려주세요!" 그 근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근심이 해결되면 좋겠다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롬 9: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저주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견디다 못해 내 구원을 취소하더라도 '저 사람 살려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렘 4:19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아파하고 탄식한 이유는 자기 혈육,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렘 20:2, 8)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오히려 자기 동족은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 고랑을 채우고, 때리고, 수치와 멸시를 안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범접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오히려 자기 동족은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 고랑을 채우고, 때리고, 수치와 멸시를 안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범접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립니다.

렘 20: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모세 역시 단장지애의 심정으로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출 32:31-32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가 누리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노예였던 동족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행합니다.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는 금 신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 불평,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 민족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세요!"

도대체 왜 모세는, 왜 예레미야는, 왜 바울은 핍박 받고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가요? 그저 내 나라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대표로 선택하신 섭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곳에는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 들어도 외면할 수 있는 소리! 하나님과 심정 소통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 가득한 죽음의 소리, 절망의 소리, 어둠에 갇힌 소리! 내 동족, 내 가족에 가득한 이 음습한 고통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갈릴리 교회 성도라면 우리에게도 이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내 부모, 내 형제, 자매들의 신음 소리! 어둔 영들에 매어 몸부림치는 내 자녀들, 내 이웃들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 소리 견딜 수 없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점검 질문

1.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 고통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2. 모세, 예레미야, 바울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나요?

2. 이스라엘의 특권

> **롬 9:4-5**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 양자됨 (출 4:22, 롬 8:15)

이스라엘은 본디 너무도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신 7:7, 겔 16:4)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출 4:22, 롬 8:15)

2) 영광

영광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 40:34)

> **롬 9:4**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세계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그 영광을 온 몸으로 체험한 예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을 모신 나라는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영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3) 언약들 (창 15:18)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율법을 통하여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4) 율법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서로 받은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배우고 알 수 있는 자리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5) 예배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6) 약속

성경에는 수천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약속들을 다 받았습니다.

7) 조상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등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8)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 (롬 1: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도대체 지상 어느 나라가 이런 복을 누린 적이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특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실패를 한 것일까요?

롬 10:2-3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실패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넘어졌지만 그 넘어진 곳을 통해 복음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고 열방은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해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언약에 실패함으로 구원사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똑 같은 후손이 아닙니다. 이삭의 자손이라고 다 똑 같은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약속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9장을 관통하는 질문들이 4개가 연속하여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질문들을 함께 읽고 묵상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점검 질문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이었나요?

3. 이 때를 위함이라

마 23: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죽음의 여정을 앞둔 예수님!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정을 떠난 것입니다. 자기 고향! 자기 근거지였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지체되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또 하나! 그 곳엔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고통자의 소리! 기도하는 자만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들을 수 있는 고통 받는 자들의 소리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병들고 상처입고 실패한 자들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의 영에 갇혀 죽어가는 자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정 중심에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 들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억눌린 자! 한 맺힌 자! 빚지고 원통한 자! 그 소리 담아 함께 기도하고 슬퍼하는 곳입니다. 아픔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유와 해방,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 3월 1일! 우리는 병천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평범한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섭리민족, 제사장 국가로 해석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정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늘과 땅의 질서, 신과 인간의 질서가 무너져만 갑니다.

누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요? 누가 죽음의 기운 걷어내고 그 곳에 생명의 강물 흐르게 할 수 있는가요?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천안 갈릴리교회를 세우셨고 부흥케 하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모르도개와 에스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만이 꾸민 이상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됩니다. 이 때 에스더가 왕후에 오릅니다. 에스더의 사촌 모르도개가 에스더에게 호소합니다.

> **에 4:13-14**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비가 된 이유는 위기의 시대, 이 때를 위하여 그리 된 것이니 너는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 네 민족을 구원하라! 이 때를 위하여 너에게 이 시간! 이 장소! 왕비의 힘 있는 직임을 주셨으니 너는 망설이지 말고 네 민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 **에 4:16**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지금은 남과 북이 극단적 대립의 길을 걷는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신앙의 가치를 잃어 버리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길들여져 가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 외치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남겨 두셨고 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하여 갈릴리 그리스도 공동체를 남겨 두셨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이 때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부장으로,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때에 침묵하면 우리에게 주신 힘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의 살아 있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함이란 말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 때에 그 힘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내 이름, 내 기득권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함이라!>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제가 목사인 게 뭐가 중합니까? 제가 장로인 게 뭐가 중합니까? 제가 부장이고 지역장인 게 뭐가 중합니까?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지역장 되고 부장됨은 바로 이 때에 네 이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고 한 알의 밀알 되어 땅 속 깊이 스며들고 발아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의 소리 붙잡고 함께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하늘을 잊어가는 시대에 한 알의 밀알, 은닉된 씨앗 되어 땅 속 깊이 스미고 세상에 스며듭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기지 않고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며 우리가 한 알의 씨앗이 되면 그곳에서는 무수한 생명의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점검 질문

1.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요?

적용 질문

1.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2. 바울에게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거룩한 근심과 고통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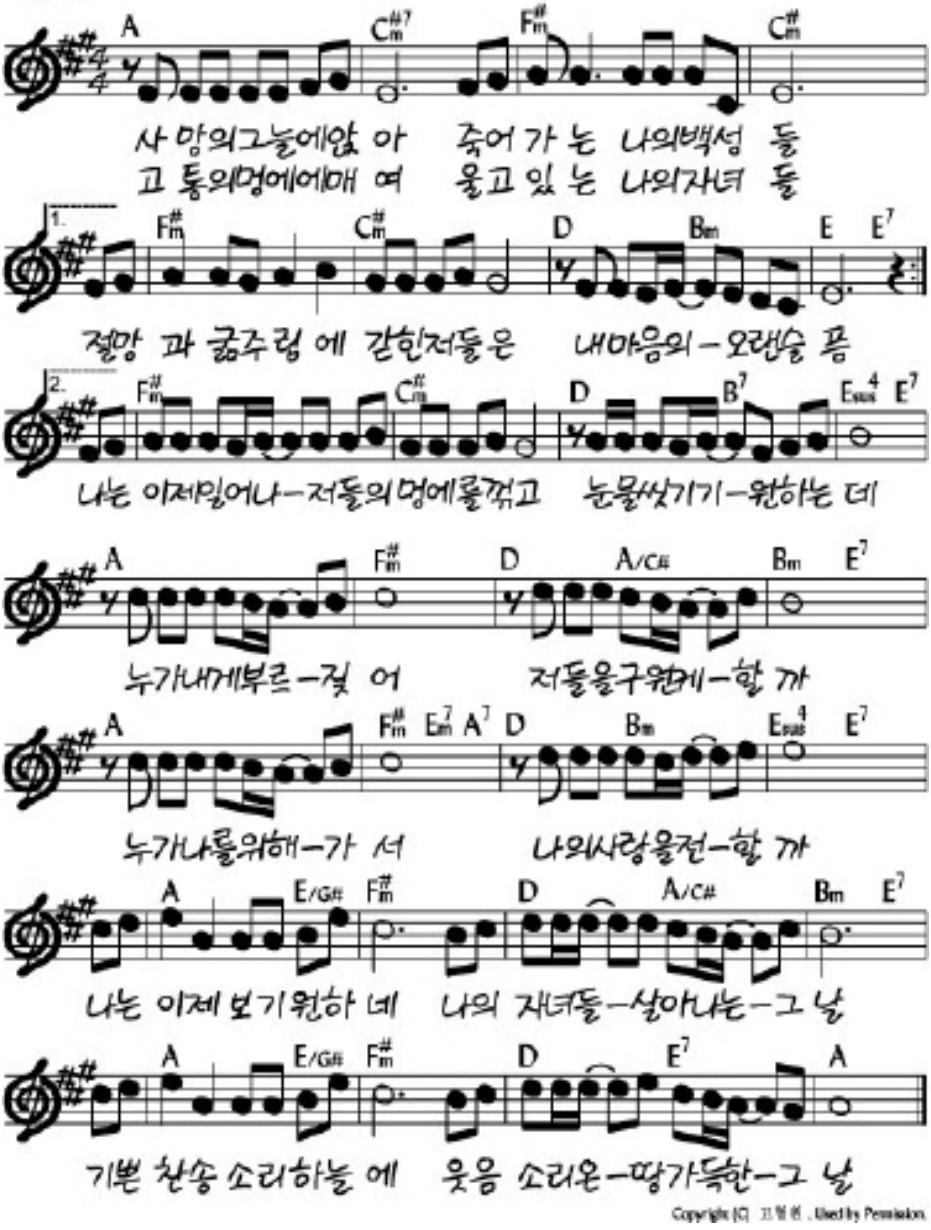
공동체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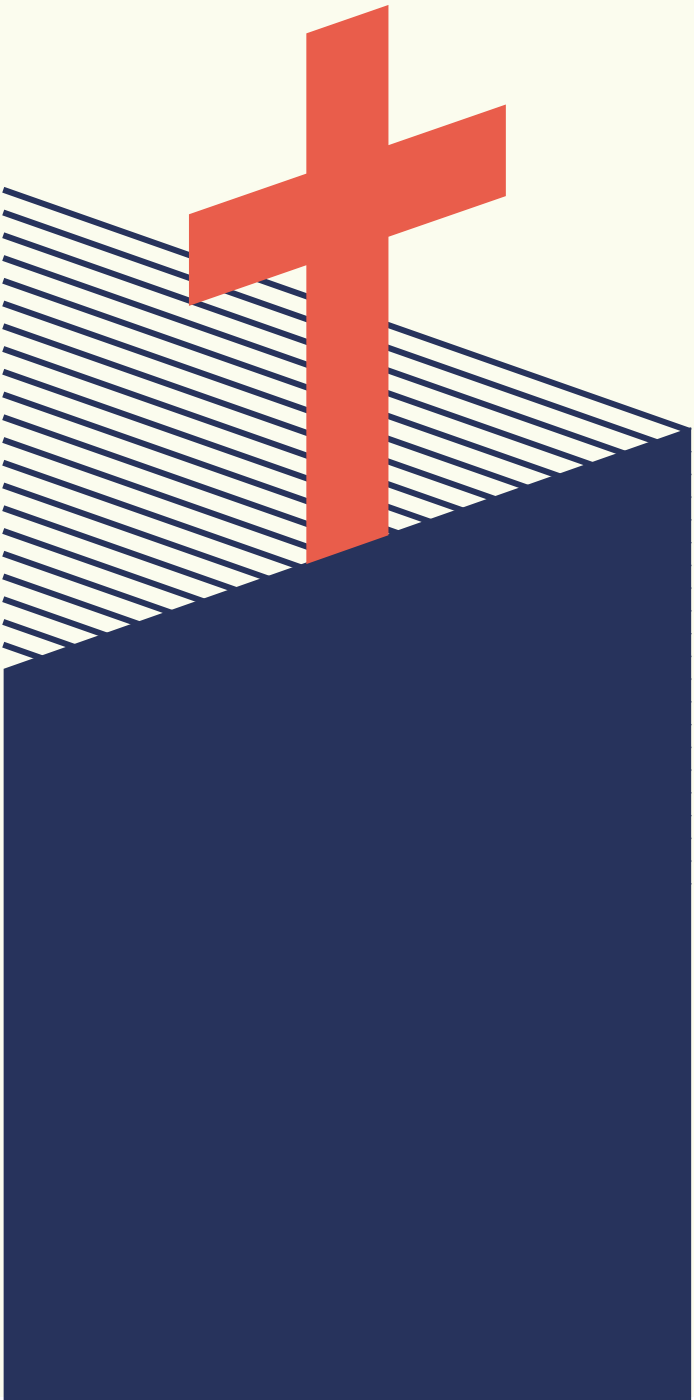
1. 3월부터 시작되는 사역들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부흥이 있게 하소서.
2.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기도는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며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3. 사순절 기간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원제 : 그날)

고형원



Copyright (C) 고형원 . Used by Permission.

NOTE.